

PA-050

벼 드문모심기가 품종별 생육 및 수량성 미치는 영향강영호^{1*}, 이덕렬¹, 조대호¹, 권석주¹¹전라북도 익산시 서동로 413, 농업기술원 작물식품과**[서론]**

현재 국내 수도작 기계화율은 약 99%인 반면 농촌 고령화 문제 해결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. 벼 드문모심기는 면적 당 투입 모판의 절감으로 육묘와 모내기 시에 농자재 및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다. 그러나 품질저하 및 수량감소의 우려도 있는 실정이다. 따라서 본 연구는 벼 드문모심기가 품종별 생육 및 수량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.

[재료 및 방법]

본 시험은 2019년 전북농업기술원의 현지 시험포장(익산)에서 수행하였다. 품종은 수중형인 신동진(330g/모판) 및 수수형인 동진찰(300g/모판)의 어린모를 사용하였다. 이앙은 6월 3일에 재식밀도 37, 50, 60, 80주/3.3㎡로 각 3본씩 손이앙을 실시하였다. 기타 재배관리는 농촌진흥청 벼 표준재배법을 따랐으며 재식밀도별 품종에 따른 생육, 수량구성요소 및 쌀수량 등을 조사하였다.

[결과 및 고찰]

재식밀도별(37, 50, 60, 80주/3.3㎡) 수확기의 주당 수수는 신동진이 각각 24, 18, 15, 13개였고, 동진찰은 27, 24, 20, 16개로 나타났다. 평균 등숙비율은 신동진은 80.6-89.2%, 동진찰은 90.3-92.6%로 나타났으며 동진찰이 신동진보다 등숙비율의 상대적으로 차이가 적었다. 수확량은 80주/3.3㎡(관행)에 비하여 신동진은 3-8%, 동진찰은 2-9%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. 본 시험은 소면적으로 수행하였으며 드문모심기에 따른 지역간 기후 및 품종 등을 고려한 연차간 생육 및 수량성 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.

*주저자: Tel. +82-63-290-6073, E-mail. dudgh0414@korea.kr